



농어촌공 고창지사, 건설현장 안전결의대회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임근춘)는 안전하고 청렴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5년 건설현장 안전결의대회 및 청렴 이행각서 교환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지사에서 시행중인 13개 지구 건설현장의 공사감독을 비롯해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이 참석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약식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한 청렴이행각서 교환식을 함께 열었다.

임근춘 지사장은 “장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안전이고 평상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공사와 시공사가 협력하고 소통하며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임용묵 기자